

국제이해교육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탐색

이경한*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 유네스코 선언에서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방법, 이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유네스코의 선언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어 있고, 이는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주기에 충분하다. 문화다양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문화다양성은 서로 다름으로 인한 실제 차이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실현하려는 가치 차이로 볼 수 있다. 국제이해교육에서의 문화 다양성은 바로 그 '사이'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국제이해교육 측면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주로 서로 간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에 초점을 둔다. 이에 토대를 둔 다문화 교육, 상호문화교육과 이문화교육은 문화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이해교육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국가간, 민족간의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에서 다소 부족함을 보이고, 글로벌 시민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에는 부족함이 있다. 단순히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간

*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khyi@jnue.kr

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제이해교육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국가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국제이해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 다양성은 출발점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이해교육은 문화 다양성의 이해를 토대로 문화간의 차별을 극복하여 글로벌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국가간’이라는 측면이 국제이해교육에서 특히 강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문화다양성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에서는 국가 간의 문화다양성의 존중, 이해와 실천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문화다양성,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상호문화이해교육, 이문화교육

I. 서 론

국제이해교육은 유엔 산하 기구인 유네스코가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큰 방향성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권고안은 국제이해교육을 ‘사회적, 정치적 제도가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간 우호주의와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존중을 토대로 하는 것’ (유네스코, 1974, 1)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이해교육의 교육목표를 ‘모든 수준 및 모든 형식의 교육에 국제 차원과 세계적 시각에서의 접근, 모든 민족, 그들의 문화, 문명, 가치와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 민족간 그리고 국가간 범지구적 상호의존 관계가 증대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타인과 의사소통능력, 개인, 사회집단

및 국가 상호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자각, 국제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 국가 및 세계 전체 문제해결에 자발적 참여'(유네스코, 1974, 2)로 제시하였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국제이해교육은 미국 등의 강대국들이 상대적으로 약소국가에 대해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주로 시행되어 왔다.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지원, 저개발의 개선,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행되어 온 국제이해교육은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단일국가 중심으로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 결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이해교육에서 상대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적이라는 관점보다는 하나의 단위로 세계를 보는 글로벌이라는 관점으로의 사고 전환을 가져왔다. 이것은 곧 국제이해교육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은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교육, 타자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교육, 세계의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교육, 문화간의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 등을 다루게 되었다.

이 중에서 문화간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은 21세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종교 등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를 다문화, 다문화, 다인종 사회 등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개인, 국가, 세계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서로간의 문화에 대한 이

해라고 볼 수 있다.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문화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다양성의 이해는 국제이해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교육은 국제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이해교육 측면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문화 다양성을 지향하는 교육 방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 다양성의 의미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타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고이다. 타문화의 이해 측면에서 볼 때, 문화 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한다(임운택 외, 2011). 다시 말하여 이것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의 핵심적 개념은 문화와 다양성이다. 즉, 문화와 다양성의 합성어이다.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가지는 생활양식(jenre de vie)이다. 그래서 문화는 언어, 인종, 종교, 전통,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요소는 지역, 인종, 종교 등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문화는 차이, 즉 다름을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문화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서로간의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고 적절한 방법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다. 당연히 문화의 이해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타자의 입장에 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문화는 다양성의 존중을 전제로 한다. 곧 문화는 차이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성을 살펴보면, 다양성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 가지 양상을 가진 특성’이다. 이종일(2010)은 다양성을 가치중립적 차원의 ‘일상적인 의미’의 다양성, ‘이종성(異種性)’의 의미로서 다양성, ‘상호의존적 의미’ 차원의 다양성, ‘평등 차원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공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의미 차원의 다양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일상적인 의미’의 다양성‘과 ‘이종성(異種性)’의 의미를 인간이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해하지만 그 가치를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이종일, 2010, 109)로 보았다. 그리고 ‘상호의존적 의미’ 차원의 다양성, ‘평등 차원의 다양성’, 그리고 ‘적극적 의미 차원의 다양성’을 평등이라는 이념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인식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종일, 2010, 110)로 보았다.

이 다양성의 관점은 Wood의 분류, 즉, ‘미국에서 인종, 민족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의미하는 다양성 I과 ‘인종과 민족이 혼합된 미국 사회가 그런 현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의미하는 다양성 II(Wood, 2003, 김진석 역, 2005, 63)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일상적인 의미’, ‘이종성(異種性)의 의미’는 다양성 I에, 그리고 ‘상호의존적 의미’, ‘평등 차원의 다양성’과 ‘적극적 의미 차원의 다양성’은 다양성 II에 해당한다. 다양성 I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실재의 다양성이고, 다양성 II는 다문화 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다양성은 서로

다름으로 인한 실재 차이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실현하려는 가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류된 다양성에 문화를 적용해볼 수 있다. 먼저, 실재의 다양성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고정된 차이를 통해 삶의 형식에 분리되어 다름으로 존재하는 다수 문화의 공존/존재를 의미한다(이용재, 2011, 184).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형식에서 미처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분기하며 차이를 생성하는 삶의 형식, 재현의 형식으로서 문화가 가지는 다양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이용재, 2011, 184-185)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치의 다양성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동반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다양성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둘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특정 사회 ‘내부’의 문제로 파악하는 접근방법이다. 각 개인들이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과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들이 합쳐져서 한 국가의 정체성이나 다른 형태의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본다. 이 방식은 기본 인권, 문화적 민주주의 촉진, 모든 소수자들의 동등한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박애경, 2011, 27). 다른 하나는 ‘다수의 국가, 사회, 문화들’사이의 문화 다양성이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의 다양성은 국가간, 문화간에 문화적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 잡힌 교류를 상징하는 원칙’(박애경, 2011, 27)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 다양성은 문화의 ‘안’과 문화들 ‘사이’에서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은 문화가 다름의 인정에서 그 다름의 추구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의 다름은

곧 다양성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이런 다름은 그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와 지역 사이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문화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실제 차이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실현하려는 가치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화 다양성은 문화의 ‘안’과 문화들 ‘사이’에서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를 국제이해교육 측면에서 보면, 문화 다양성은 국가 ‘사이’의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 사이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콘텐츠를 문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 측면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주로 국가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 즉 다양성에 초점을 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다양한 문화가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 다양성은 또 다른 다양성을 유발하고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II.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방법 탐색

1.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은 유네스코가 많은 관심을 가졌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서 여러 차원에서 이를 권고하였다. 먼저, 유네스코는 1974년에 파리에서 개최한 제18차 총회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 권고안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본 원칙은 '국내 민족 문화와 타민족 문화를 포함한 모든 민족, 그들의 문화, 문명, 가치와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유네스코, 1974)이다. 이 권고안은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문화간 이해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위한 '학습, 훈련, 행동의 상세한 측면' 중 문화적 측면에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회원국은 회원국 간의 차이를 상호 존중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 교육 단계와 유형에서 서로 다른 문화, 상호 영향, 서로의 시각과 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어, 외국 문명과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국제이해 및 문화간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 중시해야 한다.’(유네스코, 1974).

다음으로 유네스코는 2001년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선언의 제1조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집단과 사회의 독특함과 다원성 속에서 구현된다.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과 같이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한

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284)

이 선언에서 유네스코는 문화를 공동체 사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의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개념(김이섭, 2006, 149)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의 제2조에서 문화다양성을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8, 284)고 선언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참여와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언어의 표현, 창조, 전파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유네스코의 권고안과 선언을 보면, 문화다양성이 생물종 다양성과 같이 소중한 인류 유산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 간의 차이를 상호 존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점은 문화다양성을 국제 이해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다원주의를 토대로 한 글로벌 문화다양성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2.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방법 검토

문화다양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문화 다양성 교육이다.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은 ‘문화 다양성의 핵심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자 ‘인종이나 성, 신체(장애), 지역, 계층, 종교, 연령 등의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서 준비시키는 교육’(설규주, 3)이다. 이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이문화교육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 교육방법들이 문화다양성을 다루는 내용과 그 특성들을 살펴본 후, 국제이해교육에 주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먼저, 다문화교육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은 1960년대 민권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민권운동의 주요 목적은 공공시설, 주택, 고용과 교육에서 차별을 제거하는데 있었다(Banks and Banks, 1999, 5). 이렇게 시작한 다문화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집단의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공동체는 물론,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Banks, 2008; 모경환 외 3인 역, 2008, 2-8)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다문화교육이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하여 ‘소수집단이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문화집단의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는 물론,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유네스코의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의 기본원칙인 ‘국내 민족 문화와 타민족 문화를 포함한 모든 민족, 그들의 문화, 문명, 가치와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출발점은 다수의 지배적인 문화 규범에 동화되는 것이 더 이상 평등한 존중의 가치가 아니며, 차이를 긍정하는 문화를 지향한다(정호범, 2011, 105)는 점에 있다. 기본적으로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소수 문화를 동화시키려는 동화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소수문화가 주류문화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전제하는 결핍가설이 아닌,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차이가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타자를 분리하고 차별화시킴으로써 그들을 결핍, 심지어는 장애를 가진 존재로 간주하는 ‘결핍가설’에 대해서 비판(정창호, 2011, 80)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고’(장한업, 2009), 차이를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사회조직의 복수적 구성을 인정하도록 한다.

다문화교육이 전수해야 할 교육내용은 타자의 문화에 대한 ‘합의’와 ‘이해’가 아니라 타자의 문화에 대한 ‘차이의 인정’이다. 그러나 그 차이의 인정이 곧 차이를 줄이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는 차이일 뿐이고 또 다른 차이를 접했을 때 그 차이 또한 차이일 뿐’이라는 허용적이며 관용적인 시각의 확장을 의미할(정석환, 2012, 42) 수도 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이 인정의 정치학으로 흐름을 비판하면서, 다문화교육이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일련의 교육적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김정남, 이용환, 2011, 109)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다문화교육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집단이 순차적으로 들어와 구성한 모자이크 형태의 국가로 민족 또는 인종별로 배타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미

국의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의 확인이나 서술 차원에 그치고, 다문화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런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장한업, 2009, 109-110). 즉, 첫째, 다문화주의는 거부와 배제의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을 집단 속에 가두어버리면 사회적 유동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다문화주의는 집단과 문화가 점점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띌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 넷째, 문화적 변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변인을 경시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의 자율성을 경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다문화교육은 다양성 자체를 위한 다양성에 머물거나 문화의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의 근원을 분석하는데 소홀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이 주로 한 국가 내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문화다양성을 현상으로서만 인식하도록 하여 타자의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만듦으로써 다양성의 인식 가능성을 제한시킬 수 있다. 국가 내에서의 문화다양성을 강조하여 국가간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2) 상호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출발한 다문화교육은 일정한 한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상호문화교육¹⁾이 제시되었다. 프랑스에서 상호문화교육이

1) 이 용어는 상호문화교육, 문화간 이해교육, 상호문화이해교육 등으로 사

출현한 배경(장한업, 2009, 115)은 첫째는 유럽회의가 학교에서 상호 문화적 접근을 확대하고 문화정체성을 상호 개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권장하였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이민노동자 귀국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출신 언어, 문화교육을 이민 자녀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그들의 고립감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또한 ‘동화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타문화의 고유성과 상이성을 이해하는 ‘상호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이 ‘상호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주류집단의 문화와 비주류집단의 문화들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오영훈, 2009, 33-34). 이렇게 출발한 상호문화교육은 ‘소수자를 다수자에 동화시키려는 동화주의, 소수를 다수가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소극적인 다문화주의보다는 타자의 문화적 동일성과 정체성을 인정해주면서 상호성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소통을 모색하는 소위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최신일, 2010, 198-199).

이런 배경으로 출발한 상호문화교육은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능력, 다른 문화와 성공적인 의사소통능력, 상호문화적 상황에서 문화간 의미충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종하, 2006, 110). 이 정의를 토대로 보면, 상호문화교육의 중요 개념은 다문화성과 문화간 이해 능력이다. 여기서 다문화성은 언어적,

용되고 있다. 이것은 intercultural education을 번역한 것으로, 그 어의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원문에 가장 가까운 용어인 상호문화교육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화 되어지는 과정의 (중간) 결과에 대한 묘사이다. 그리고 문화간 이해 능력은 문화간의 차이와 공통성을 발견하는 능력, 이문화적 시각에서 자신의 사고, 행위, 태도, 관념의 문화적 종속성에 대한 반성 능력, 의사소통능력과 특별한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전략 수립 능력, (비판적) 관용과 역설적 상황 설정 능력, 이문화의 동료와 협력, 통합능력이다. 이 점은 상호문화교육이 문화간의 차이인 문화다양성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간의 이해 능력을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 이해에서는 단순한 관용을 넘어서 협력과 통합 능력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상호문화 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이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이고, 서로 다른 문화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사회 속에서 서로 평등하게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오영훈, 2009, 34) 궁극적인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런 사고는 다문화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사회통합 및 고유함의 발현을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을 넘어 인간 모두에게 보편성을 지닌 교육의 한 부분으로 그 의리를 확대하게 되었다(정석환, 2012, 33).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자민족 중심주의 혹은 자민족 중심주의적 성격을 극복하고 타문화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는 보다 확대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용적으로 연산한 결과가 상호 문화주의(inter-culturalism)라는 구조(정석환, 2012, 33)를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일련의 교육적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상호문화교육(장한업, 2009, 117-118)은 다문화교육에 비해서 이질성, 표상, 편견, 고정관념, 정체성 등을 주된 주제로 내세운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행동의 차원에 비중을 두고 있고,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이해보다는 문화들 간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호문화교육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다. 즉, 다문화교육의 차이 존중 사고에서 진일보하여 그 차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면서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교육이다. 다양성을 넘어 다양성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소수집단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의 존중과 이해를 목표로 한 상호문화교육이 편파적으로 문화적 상이성에 초점을 두고 각각의 이주한 소수집단과 주류집단의 표면상의 본질적이고 동질적인 문화개념을 묵시적으로 전제함에 문제가 있다(홍은영, 2012, 147)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이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일본의 이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1996년 7월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 ‘21세기를 전망한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답신에서는 초등학교의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필수 교과로서는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재량수업 시수를 활용하거나 특별활동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이나 학교의 실태에 따라 아이들에게 외국어, 예를 들면 영어회화를 접할 기회나, 외국의 생활, 문화 등에 친숙해질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이은송, 2010, 135). 이렇게 도입된 이문화교육은 문화간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에 관심을 두고, 초등학생들의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체험을 통하여 추진(이은송, 2010, 136)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의미하고, 이문화 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다. 이문화교육의 핵심 개념은 문화의 고유성, 문화교류와 다차원적 가치관이다. 그래서 이문화교육은 문화와 문화 사이의 접촉 과정에서의 상호교류와 작용을 강조하고(박진현, 2002, 11) 있다. 이 점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인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양식의 이해와 문화적 상대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문화교류의 과정에 있어서 전통 문화와 외래문화와의 갈등에 대한 이해’(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1974, 90)와 맥을 같이 한다.

이문화교육은 문화의 차이, 즉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자국문화에 중심을 두고, 다른 문화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는 교육에서 시작하였다. 이것은 문화간 이해 교육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문화교육은 2000년대에 ‘다문화공생’이란 관점이 일본 주요 정책에 강력하게 대두되었다(이은송, 2010, 136). 이 다문화공생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상호문화교육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이문화교육은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토대로 국제이해교육의 한 단면이고, 다문화공생교육은 문화이해교육으로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3. 문화다양성 교육과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과 이문화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을 다루는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저마다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인간 사회의 문화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족이나 국가 문화의 요소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와 사

회 경제적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UNESCO, 2006, 17). 다문화교육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다문화주의에 토대를 두고서 자국 내에서의 문화간의 차이를 긍정하도록 한다. 이 문화간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은 타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을 기르기 위하여 타문화에 관한 학습을 이용한다(UNESCO, 2006, 18).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주어진 국가 체제 안에서 주류집단의 문화가 중심을 이루는 한계가 있다. 동화주의의 틀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수 문화에 대한 시혜주의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상호문화성은 문화집단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의미를 지닌 동적 개념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이의 균등한 상호작용과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창출 가능성이다. 이 상호 문화성은 다문화주의를 전제로 하고, 고장, 지역, 국가 혹은 세계적 수준에서 문화간 교류와 대화의 결과이다(UNESCO, 2006, 17).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호문화교육은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문화간 편견 극복 등을 지향한다. 상호문화교육은 소극적인 공존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 집단에 대한 이해, 이의 존중과 이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성취하는데 목적이 있다(UNESCO, 2006, 18). 이는 문화의 상호주의 입장을 토대로 문화의 편견까지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문화교육은 자국 입장에서의 타문화 이해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 이해의 초기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수준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문화 교육이 동화주의에서 약간 벗어나 통합주의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방법은 입장에 따라서 그 성격이 약간씩 다르지만, 그 출발은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 이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은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문화의 상호 동등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 문화편견 극복 등으로 나아가면서 차별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상호문화교육은 문화다양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교육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이해보다는 문화간의 만남을 강조하는(장한업, 2009, 118)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문화다양성을 국가간, 민족간 등 상위 스케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은 부족함이 있다. 다문화교육은 국가내의 문화 차이를 강조하고, 상호문화교육과 이문화교육은 자국 문화와 유입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기에 보다 큰 스케일의 세계시민적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교육을 수행하는데 그 실천력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IV. 결론: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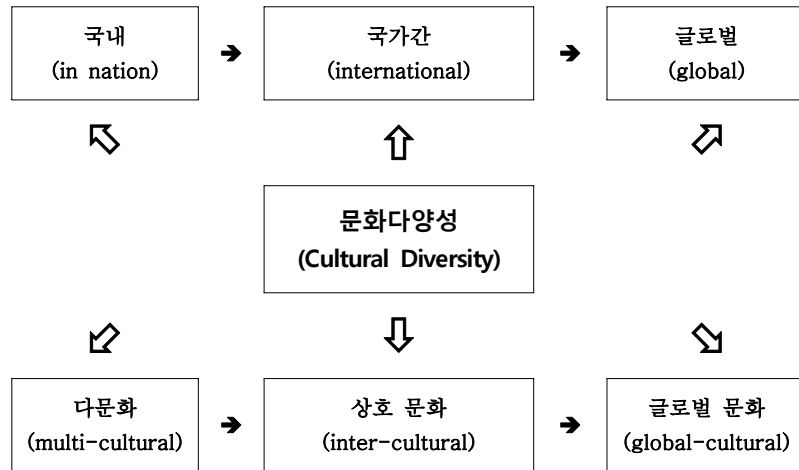
지금까지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 유네스코 선언에서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방법, 이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유네스코의 선언에서 매

우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어 있고, 이는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주기에 충분하다.

문화다양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문화다양성은 서로 다름으로 인한 실제 차이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실현하려는 가치 차이로 볼 수 있다. 국제이해교육에서의 문화 다양성은 바로 그 ‘사이’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국제이해교육 측면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주로 서로 간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에 초점을 둔다. 이에 토대를 둔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과 이문화교육은 문화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이해교육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국가간, 민족간의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에서 다소 부족함을 보이고, 글로벌 시민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에는 부족함이 있다. 단순히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은 국내, 국가간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수준에 따라서 다문화, 상호문화 그리고 글로벌 문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문화다양성은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이문화 그리고 글로벌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은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은 중요한 축이다. 국가의 이해를 돕는 교육으로서, 국제이해교육은 국가 간 문화의 차이를 존중한다. 그것은 문화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하고, 국가를 이해하는데 문화가 중



[그림 1]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의 위치

요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이해교육이 세계시민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는 경우, 자국문화와 유입된 문화, 자국문화와 타국문화, 타국문화와 유입된 문화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충돌을 극복하고 사회나 국가의 통합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 차이의 존중은 국제이해교육의 중심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국제이해교육은 상호간의 문화 이해를 넘어서 그 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주체들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제이해교육은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국가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국제이해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이해교육은 문화 다양성의 이해를 토대로 문화간의 차별을 극복하여 글로벌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 다양성은 출발점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유네스코의 ‘모든 학습자들이 개인,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집단과 국가 간의 존중, 이해와 연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습자에게 문화적 지식, 태도와 기능을 제공한다.’(UNESCO, 2006, 32.)라는 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간의 존중, 이해와 연대에 기여할 수 있게 문화적 지식, 태도와 기능을 제공하는 점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다. ‘국가간’이라는 측면이 국제이해교육에서 특히 강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간을 넘어선 ‘글로벌’ 단위의 국제이해도 중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문화다양성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에서는 국가 간,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의 문화다양성의 존중, 이해와 실천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환(2010). 유럽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유럽헌법연구** 8. 57-86.
- 김이섭(2006). 유럽과 유네스코의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하인리히 뵐 학술지 제6집**. 139-154.
- 김정남, 이용환(2011). 다문화교육의 주요 문제: 불평등과 사회정의. **교육연구** 34. 107-125.
- 나장함(2010). 다문화 교육 관련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분석: 이론과 교육과정 변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4). 97-119.
- 노재봉, 김순임(2011). 이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모델. **독일언어문학** 54. 277-304.
- 박남수, 정수권, 서정석(2007). 초등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세계교육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과교육연구** 14(4). 213-240.

- 박선희(200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과 프랑스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3(3). 195-218.
- 박애경(2011). 글로벌 문화다양성의 재현 의미: 유네스코 협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박진현(2002). 사회과 이문화(異文化)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 교육대학교.
- 뱅크스(2008). **다문화교육 입문**. 모경환, 최충옥, 김명정, 임정수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Banks, J.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iy & Bacon.]
- 오영훈(2009).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2). 27-44.
- 우드(2005).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김진석 역. 서울: 해바라기. [Wood, P.(2003). *Diversity: the invention of a concept*.]
- 유네스코(1974).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유네스코.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74). **국제이해교육 지침서**. 서울: 동아문화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8). **유네스코와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이산호(2009).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8. 289-315.
- 이용재(2011). 다문화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다문화개념의 전환. **사회과학연구** 19(2). 173-299.
- 이은송(2010). 일본의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 이문화교육에서 다문화공생교육으로. **교육철학** 49. 133-154.
- 이종일(2010).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의 의미. **사회과교육연구** 17(4). 105-120.
- 이종하(2006). 독일의 문화간 이해교육의 실천과 시사점. **한국교육문제연구** 17.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105-120.
- 정석환(2012).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한국 다문화교육의 재개념화. **한국교육학연구** 18(2). 23-49.

- 정호범(2011).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배경. **사회과교육연구** 18(3). 101-114.
- 정창호(2011). 독일의 상호문화교육과 타자의 문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1). 75-102.
- 장한업(2009).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 연구. **프랑스 어문교육** 32. 105-121.
- 최신일(2010). 도덕과 다문화교육의 해석학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34. 198-199.
- 최충옥, 조인제(2010). 다문화교육 연구의 동향과 향후과제. **다문화교육** 1(1). 1-20.
- 허영주(2011). 보편성과 다양성의 관계 정립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7(3). 205-235.
- 홍은영(2012).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17(1). 143-162.
- Banks, J. A. and Banks, C. M. A.(1999).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3rd Ed.). John Wiley & Sons, Inc.
- UNESCO(2006). *UNESCO Guidelines on International Education*. section of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Abstract

Review of Cultural Diversity i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Yi, Kyeong Ha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meaning of cultural diversity(CD), CD in UNESCO declarations, teaching strategies for CD and its limits in perspectives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EIU). As the results, the meaning of CD was directed as important theme in UNESCO declarations. It is enough to give guidelines for CD in EIU.

CD Concept basically focused on cognizing and respecting cultural difference. CD in EIU emphasize diversity of 'between'. So it focuses on difference of cultures, revealing between them. Based on this aspect,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culture education and cross culture education are trying the development of CD for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cultural difference internationally. But on EIU, these are wanting in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nations, and in direct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auses and alternatives of raising cultural difference beyo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

And EIU hope to realiz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ased on CD. So In EIU CD is the starting concept. In EIU 'between nations' aspect is emphasized especially, and CD as contents is dealt. Also EIU hope to

realize global society, overcoming difference between cultures through understanding CD. So EIU emphasized respecting, understanding and acting of CD between nations.

Key words :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culture education, cross culture education

투고신청일 : 2014. 11. 29

심사수정일 : 2014. 12. 23

게재확정일 : 2014. 12. 24